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2007년 대통령선거에 미친 영향력 분석

가상준 | 단국대학교

| 논문요약 |

본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대통령후보 선택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보며, 이를 과거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봄으로써 17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평가와 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고찰해 보고,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적 차원에서 알아보았다.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평가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었지만 그럼에도 17대 대통령선거가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거와 달리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3김 퇴장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기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경우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

I. 서론

제17대 대통령선거가 한나라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한나라당은 10년 만에 여당의 위치로 돌아가게 되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패배하여 10년 동안 야당의 위치에 있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 국정운영의 미숙함에 대한 실망감과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등에 업고 여당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한편,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민적 여망은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의 경험과 경륜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결국에는 대통령선거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과거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볼 때 17대 대통령선거는 뜨거웠던 경선과정 그리고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정당 간 갈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하였다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무엇보다 유례없이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제17대 대통령선거 결과에 대해 많은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무엇보다 노무현 정부에 대한 실망 그리고 경제상황 호전에 대한 유권자들의 커다란 희망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노무현 정부에 대한 5년 동안의 실망 그리고 여당과 대통령과의 갈등 등은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불만감을 안겨 주었기에 열린우리당의 후신인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경쟁력은 크게 다가오지 못했다. 특히,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탈당과 새로운 정당의 창당 그리고 새로운 후보들의 영입은 대통령선거를 목표로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취해졌지만 책임정치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여겨져 국민적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켰으며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두 가지 요인이 상호 배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실망은 야당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국민들의 대통령 및 여당에 대한 실망이 대통령선거 결과에 직접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강원택 2008).

제17대 대통령선거는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선거에서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크게 미쳤었다(가상준 2007). 그럼에도, 17대 대통령선거의 결과가 특별하게 관심을 끄는 것은 과거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영향력과는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즉,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와 달리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점이다. 이에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데 실패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경쟁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고 반면, 한나라당 후보의 경쟁력은 크게 강화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대통령선거는 과거 대통령선거에 비해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 선거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 속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유권자의 대통령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해 보며, 이를 과거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해 봄으로써 17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제2절에서는 대통령 평가와 선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론을 고찰해 보고, 제3절에서는 민주화 이후 한국선거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절에서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비교적 차원에서 알아보았고 마지막 제5절에서는 결과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II. 선거와 대통령 평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학자들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충성심(Campbell et al. 1960) 그리고 유권자가 느끼는 정당 및 후보자와의 정책적 교감(Downs 1957) 등에 초점을 맞추어 유권자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정부의 업적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설명하고 있는 회고적 투표 이론은 선거 행태 및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회고적 투표 이론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징계(punishment)와 보상(reward)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다(Fiorina 1981). 즉, 정부의 행한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보상의 차원에서 대통령 및 여당에 투표할 것이며,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징계의 차원에서 야당 및 야당 후보자에 투표한다는 것이다. 회고적 투표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결정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는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회고적 투표에 중요한 잣대로 이용되는 것은 대통령의 역할이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에서 대통령은 경제, 외교, 사회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국민들은 국가 상황, 생활여건 등에 대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전반적인 상황 및 여건이 매우 호전(好轉)적이라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평가는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로 대통령의 결정, 추진하는 정책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라 할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지지율로 산출되어 나타나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의 백분율이다.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만족도이기에 정치적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데 앞선 선거의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 대통령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경우 보상의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혹은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게 되지만, 만족도가 낮다면 응징의 차원에서 야당 및 야당 후보자에게 정치적 지지를 보내게 된다. 이에 미국의 경우 대통령 지지율을 통해 중간선거 및 대통령선거에 대한 예측 및 분석을 시도하는데(Abramowitz 2004; Brody and Sigelman 1983; Campbell 1960, 2004; Kramer 1971; Lewis-Beck and Rice 1982; Sigelman 1979; Tufte 1975, 1993), 이는 일반적으로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평가가 선거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가상준 2002; 조진만 외 2명 2006; Brody and Sigelman 1983; Lewis-Beck

and Rice 1982; Sigelman 1979).

대통령 평가, 즉 지지율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국가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대통령 지지율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Clarke and Stewart 1994; Erikson and Tedin 1995; Kinder and Kiewiet 1981; Norpoth 1996; MacKuen et al. 1992; Ostrom and Simon 1985). 즉, 국가 경제상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대통령 지지율은 상승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지지율은 하락한다고 하겠다. 이에 국가 경제상황이 직·간접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집효과, 허니문효과가 중요시 다루어진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정치적 스캔들도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III. 한국 선거의 일반적 경향

민주화 이후 한국의 선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역주의라고 말할 수 있다(박상훈 2001; 이갑윤 1997; 조기숙 1997; 최영진 2002). 3김의 영향력하에 유권자의 선택은 결정되어 나타났고 선거결과가 도출되었다. 하지만 지역주의 선거가 약해지고 있다는 주장과, 아직도 과거와 다르지 않게 지속되고 있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에서 이념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며(강원택 2002, 2003; 김옥 2006; 정구종 2006)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평가를 중시하는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성향은 선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강한 회고적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2002년, 2006년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와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러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은 커다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요인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거가 실시되기 전 측정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38.7%로 매우 낮은 상태였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선거에

서 28.72%, 비례대표 선거에서 29.1%의 득표율을 얻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51.96%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52.15%를 얻은 한나라당에 크게 패하게 된다. 특히, 2002년 지방선거는 김대중정부에서 치러진 선거였지만 1998년 지방선거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¹⁾ 한편, 2006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야당인 한나라당에 크게 패하게 되는데 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35%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국회의원선거에서 회고적 투표 성향이 발견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이는 2000년까지 3김의 영향력 하에서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기 때문이며 2004년 국회의원선거는 탄핵에 대한 역풍에 의해 선거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선거는 선거 시기의 중요한 이슈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선거결과가 크게 달라졌기에 한 마디로 간추려 설명하기에는 힘들다. 특히, 후보 간 연합이 형성되면서 회고적 투표의 경향은 찾기 힘들었다. 1997년 대통령 선거는 IMF 위기 및 국정혼란에 대한 책임론이 중요하게 작용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물론이 제기되었다. 한편, DJP 연합은 선거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02년 대통령선거는 반미감정을 중심으로 형성된 진보적 사회분위기, 수도 이전, 노무현-정몽준 연합 등의 영향을 받아 선거결과가 도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17대 대통령선거는 과거 대통령선거와 비교하여 다른 차원에서 전개되었고 결과가 나타났는데, 17대 대통령선거의 중요한 특징은 이명박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지지율로 지속적으로 앞서 나아갔으며 결국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와 김대중 후보 그리고 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가 각축전을 벌인 데 비해 17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명박 후보의 독주가 계속 이어졌는데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 및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

1)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4개월 후에 치러진 1998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국민회의는 연합여당인 자민련과 함께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10곳에서 승리하여 만족스러운 선거결과를 얻는다. 선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80.5%로 매우 높은 상태였다.

을 미쳤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없다. 이에 과거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여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선거결과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려 한다.

IV. 대선과 유권자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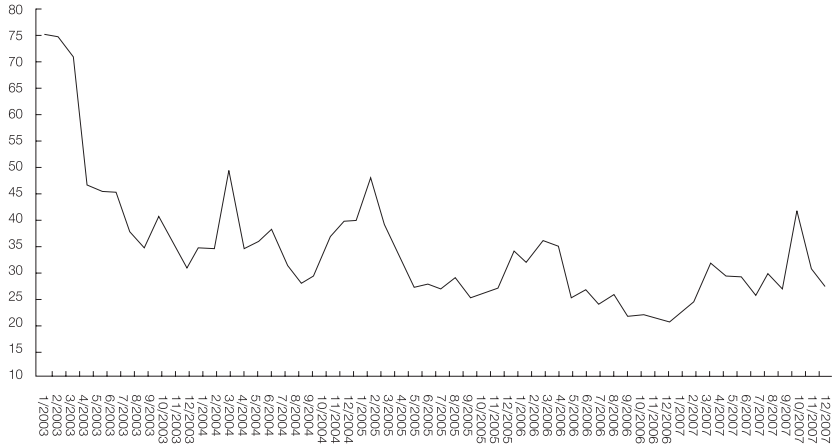
1.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7대 대통령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전에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았다. 다음의 <그림 1>은 취임 후부터 2007년 12월까지 노무현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다.²⁾ 임기 초 허니문 효과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4개월 후 허니문 효과의 영향은 사라지고 지지율은 40%대로 하락한다.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남북정상 회담 등으로 지지율이 50%에 가깝게 상승하기도 하지만 지지율은 주로 30%대에 머물면서 좀처럼 상승하지 않는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20%대로 자주 하락하기도 하여 대통령 업무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족스러움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과는 크게 다른 양상이다. IMF로 인해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후반에 급하강하였고 친인척 비리로 인해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임기 후반에 크게 하락하였지만 전임 두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긴 허니문효과를 경험하였으며 전통적 지지층으로 인해 40%대의 지지율은 유지할 수 있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대통령선거 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2) 2003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월별지지율이지만 2004년 3월과 4월 지지율은 빠져 있다. 의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상태였기에 업무수행 능력을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림 1〉 노무현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³⁾



자료: 리서치&리서치(R&R)

아보았다. 〈표 1〉은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노무현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응답자들의 평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는 25.8%로 나타나 지지율이 낮은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⁴⁾ 이는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매우 부정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야당에게는 매우 유리한 구도가 형성된 반면 여당에게는 매우 불리한 구도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고 말할 수 있다. R&R의 2007년 12월 지지도 설문조사 결과와 비슷한 26.5%로 나타나 유사한 결과가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낮은 지지율이 대통령선거 시에 만나

3) R&R은 대통령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매월 약 800명 성인남녀에게 “OO님께서 현재 OOO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질문을 한다. 많은 경우 잘 모르겠다고 혹은 보통이라고 대답하는 응답자가 많기에 이들을 구분하기 위해 “그래도 굳이 따진다면, 잘하는 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는 편에 가깝습니까?”라고 재질문한다. 여기서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응답자들의 퍼센트가 대통령지지도로 산출된다.

4) 선생님께서 지난 5년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업무수행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 본 설문조사 결과다.

〈표 1〉 노무현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2007년 12월)

항목	빈도	%
매우 잘하였다	15	1.2
잘한 편이다	295	24.6
못한 편이다	565	47.0
매우 못하였다	305	25.4
모름 / 무응답	21	1.7
합계	1,201	100.0

〈표 2〉 김대중/김영삼 대통령 업무수행 평가

항목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빈도	%	빈도	%
아주 잘 하고 있다	37	2.5	9	0.7
잘 하고 있는 편이다	316	21.1	27	2.2
그저 그렇다	543	36.2	169	14.0
잘 못하는 편이다	420	28.0	413	34.3
아주 못하고 있다	184	12.3	586	48.7
합계	1,500	100.0	1,204	100.0

타난 것은 아니다. 앞의 〈그림 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남북정상회담이 있었던 10월을 제외하고 2005년 6월 이후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였다.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였는지 비교차원에서 알아보기 위해 2002년 대선과 1997년 대선 시 김대중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교하여 보았다. 〈표 2〉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2002년 12월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23.6%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2.9%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문항 및 응답항목의 차이로 인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두 대통령의 지지율도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고 있는 R&R의 결과를 보면 선거 전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34.9%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14%로 나타나고 있다.⁹⁾ 이러한 결과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시 지지율은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하고 김영삼 대통령보다는 높았다고 말할 수 있다.

〈표 3〉 노무현 대통령 평가와 후보자 선택(2007년 12월)

평가 후보선택	매우 잘하였다	잘한 편이다	못한 편이다	매우 못하였다	계
정동영	6 50.0%	65 27.8%	71 14.7%	12 4.3%	154 15.2%
이명박	3 25.0%	91 38.9%	313 64.7%	216 76.9%	623 61.6%
이회창		24 10.3%	49 10.1%	37 13.2%	110 10.9%
기타	3 25.0%	54 23.1%	51 10.5%	16 5.7%	124 12.3%
계	12	234	484	281	1,011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은 어떠한 관련성을 띠며 나타나는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알아보았다.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2007년 대통령선거 시 노무현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는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에 대해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매우 못하였다고 대답한 응답자의 75%가 그리고 못한 편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61.5%가 전체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의 69%가 이명박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이 업무수행을 매우 잘하였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다른 후보보다 여당의 색깔을 진하게 띠고 있는 정동영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서로 다른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의 대통령 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표 4〉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들은 이명박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에 비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

5) R&R의 질문방법은 2007년 대통령선거 설문조사 방법과 거의 동일하기에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2년과 1997년 R&R 조사는 12월보다 일찍 수행된 결과다.

〈표 4〉 노무현 대통령 평가 비교

후보 선택	노무현 대통령 평가 평균	F-값
정동영	2,578	48,021***
이명박	3,191	
이회창	3,118	

***p<0.01

〈표 5〉 김대중 대통령 평가와 후보자 선택(2002년 12월)

후보선택 \ 평가	잘함	보통	못함	계
이회창	34 10.5%	171 36.9%	304 57.8%	509 38.7%
노무현	285 87.7%	265 57.2%	191 36.3%	741 56.4%
기타	6 1.8%	27 5.8%	31 5.9%	64 4.9%
계	325	463	526	1,314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2002년과 1997년 결과와 비교해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표 5〉는 2002년 설문조사 결과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후보자 선택 교차분석을 보여주고 있다. 결과가 보여주듯이 2002년의 경우 김대중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서 제1야당 후보인 이회창을 선택하고 있는 비율은 2007년과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낮은 편이다. 특히, 못하는 편이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 중 여당의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36.3%였으며 반면, 이회창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57.8%로 2007년도의 경우와 크게 비교된다. 또한, 보통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다수는 이회창 후보보다는 노무현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의 결과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2007년도와

〈표 6〉 김영삼 대통령 평가와 후보자 선택(1997년 12월)

평가 후보선택	잘함	보통	못함	계
이회창	13 36.1%	80 47.3%	310 31.0%	403 33.5%
김대중	14 38.9%	33 19.5%	399 39.9%	446 37.0%
이인제	5 13.9%	38 22.5%	146 14.6%	189 15.7%
기타	4 11.1%	18 10.7%	144 14.4%	166 13.8%
계	36	169	999	1,204

〈표 7〉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야당 후보 득표율(%)

	1997년	2002년	2007년
현직 대통령 지지율 ⁶⁾	2.9 19.36	23.6 38.13	25.8 28.21
여당 후보 득표율	38.15	48.47	26.14
제1야당 후보 득표율	39.65	46.17	48.67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1997년 선거에서도 2002년과 비슷하지만 2007년과는 차이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응답자일지라도 높은 비율로 여당후보인 이회창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영삼 대통령이 업무수행에 대해 부정적으로 대답한 응답자의 31.0%가 여당의 이회창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07년과는 비교되는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가 있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또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 선택에 있어 2007년과 같은 영향력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선거결과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표 7〉은 대통령 지지율과 대통령선거에서 여당과 야당후보의 득표율을 보

6) 위의 값은 12월 설문조사 당시 지지율이고 아래 값은 선거가 실시된 해의 평균 지지율이다.

〈표 8〉 16대 대선에서의 선택과 노무현 대통령 평가

후보선택 \ 평가	잘함	못함	계
이회창	45 10.2%	398 89.8%	443 100.0%
노무현	189 36.6%	327 63.4%	516 100.0%
기타	8 28.6%	20 71.4%	28 100.0%
계	242	745	987

여주고 있다. 2002년 12월 설문조사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지지율은 23.6%였으며 2002년 평균 지지율은 38.13%였다. 하지만 여당의 노무현후보는 48.47%의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되는데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경향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발견된다. 1997년 12월 설문조사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지지율은 2.9%였으며 1997년 평균 지지율은 19.36%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낮은 지지율하에서 여당의 이회창 후보는 38.15%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즉,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지지율과 2007년 평균 지지율은 2007년 대통령선거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나왔다. 이로 인해 여당의 색채를 짙게 띠고 있는 정동영 후보는 26.14%의 득표율을 얻었고, 야당의 이명박 후보는 48.67%의 높은 득표율을 얻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실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16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선택과 노무현 대통령 평가 간 교차분석을 통해 알 수 있다. 〈표 8〉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중 노무현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36.6%로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유권자 중에 많은 이들이 5년 후 노무현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낮은 평가는 과거 노무현을 지지하지 않은 유권자들

〈표 9〉 16대 대선과 17대 대선에서의 유권자 선택

17대 \ 16대	이회창	노무현	기타	계
정동영	9 2.2%	120 27.4%	2 8.0%	131 14.9%
이명박	344 82.5%	205 46.8%	9 36.0%	558 63.4%
문국현	55 13.2%	39 8.9%	1 4.0%	95 10.8%
기타	9 2.2%	74 16.9%	13 52.0%	96 10.9%
계	417	438	25	880

뿐만 아니라 노무현을 지지한 유권자들 중에서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가 17대 대통령선거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은 16대 대통령선거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한 후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9〉는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16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후보를 선택했다고 대답한 응답자 중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동영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27.4%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노무현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중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는 46.8%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노무현후보를 지지한 많은 유권자의 선택이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17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위의 결과들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후보자 선택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와 다른 구도 속에서 유권자 선택이 결정되었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즉,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에 비해 대통령평가의 영향력은 17대 대통령선거에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보다 더욱 강한 과거 회고적 투표 성향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난 것은 17대 대통령선거가 민주화 이후 3김의 직접적 영향력 없이 치러진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즉, 과거 대통령선거는 3김의 영향력

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선택이 3김에 대한 지지를 중심으로 응집되어 나타났고 이에 과거 회고적 투표 성향은 크게 찾을 수 없었다. 반면, 17대 대통령선거는 3김의 직접적 영향력이 사라지면서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 성향, 즉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 선거라 말할 수 있다.

2. 회귀분석 결과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도해보았다. 종속변수는 17대 대통령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보인 세 명(이명박, 정동영, 이회창)의 후보이며, 이들 후보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념, 지역주의를 포함시켰고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유권자일수록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을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야당후보에 대한 지지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언급했지만 민주화 이후 한국선거에서 유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은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영남 유권자의 경우 정동영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호남 유권자의 경우 반대로 이명박 후보보다는 정동영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동영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에도 나타날 것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 선택에 있어 이념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2002년 선거에서 진보적 사회분위기는 노무현 후보의 당선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를 통해 더욱 이러한 경향을 알 수 있다.

한편 2007년 분위기를 2002년과 비교해 보면 매우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⁷⁾ 전반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유권자의

7) 설문에 응답한 유권자의 평균 이념점수는 5.30(0: 진보, 5: 중도, 10: 보수)로 진보보다는 보수에 가까운 편이다. 2002년의 경우 평균값은 2.82(1: 진보, 3: 중도, 5: 보수)로 보수보다는

〈표 10〉 2007년 대선 분석⁸⁾

변수	이명박 / 정동영		이회창 / 정동영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이념	0.110**	0.056	0.157**	0.071
평가	1.064***	0.160	0.919***	0.204
호남	-2.494***	0.316	-2.741***	0.628
영남	1.073***	0.309	0.670*	0.373
교육	0.203	0.212	0.419	0.273
소득	-0.063	0.083	-0.059	0.105
성별	-0.068	0.230	-0.032	0.293
세대	0.264**	0.103	0.149	0.130
절편	-3.270	1.032	-4.837	1.313

*p<0.1, **p<0.05, ***p<0.01

이념성향은 후보자 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보수적 유권자일수록 이명박 혹은 이회창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며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정동영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이들 변수의 정확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통제 변수로 소득, 연령, 세대, 그리고 교육 변수를 포함시켰다.

〈표 10〉은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이명박/정동영 후보의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친 변수는 대통령 평가, 이념, 호남, 영남, 그리고 세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정동영 후보보다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수적인 유권자일수록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호남유권자는 정동영 후보를 영남유권자는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대가 높을수록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평가, 지역주의, 그리고 이념이 유권자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이회창 후보와 정동영 후보 선택에 영향을 미친 변수들을 살펴보면 대

진보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8) 이념은 1(진보) - 10(보수), 정부평가는 1(잘함) - 4(못함), 성별은 1(남성) - 2(여성)

〈표 11〉 1997년 대선 분석⁹⁾

변수	김대중 / 이회창		이인제 / 이회창	
	계수	표준오차	계수	표준오차
이념	0.201***	0.064	0.151**	0.070
정부 평가	0.402***	0.107	0.058	0.107
호남	3.882***	0.468	2.523***	0.507
영남	-1.479***	0.210	-0.284	0.197
교육	-0.187*	0.112	-0.139	0.126
소득	-0.039	0.043	0.013	0.047
성별	-0.297*	0.175	-0.403**	0.188
세대	-0.235***	0.089	-0.403***	0.188
절편	-0.603	0.777	0.524	0.822

*p<0.1, **p<0.05, ***p<0.01

출처: 가상준(2007)

통령 평가, 이념, 지역주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 일수록 그리고 보수적 유권자일수록 정동영 후보보다는 이회창 후보를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지역주의의 영향 또한 이회창 후보와 정동영 후보간 선택에 있어 나타나고 있는데, 호남 유권자일수록 이회창 후보보다는 정동영 후보를 영남유권자일수록 정동영 후보보다는 이회창 후보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결과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 선택에 얼마나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야당후보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졌음을 통계분석 결과는 제시하고 있다.

한편, 과거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후보자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와 동일한 모델로 회귀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표 11〉은 1997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회귀분석(Multi-nominal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표 12〉는 2002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회귀분석(Binary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¹⁰⁾ 〈표 11〉의 결과를 통해 1997년 선거에서도 대

9) 이념은 1(보수) - 5(진보), 정부평가는 1(잘함) - 5(못함), 성별은 1(남성) - 2(여성)

〈표 12〉 2002년 대선 분석¹¹⁾

변수	계수	표준오차
이념	0.726***	0.082
정부 평가	-0.855***	0.082
호남	2.314***	0.318
영남	-0.736***	0.152
교육	-0.129	0.081
소득	-0.014	0.035
성별	-0.083	0.147
세대	-0.036***	0.008
절편	2.866	0.654

*p<0.1, **p<0.05, ***p<0.01

출처: 가상준(2007)

통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영삼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여당후보인 이회창 후보보다는 김대중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념, 그리고 지역주의가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²⁾

대통령 평가의 중요성은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표 12〉

10) 1997년 선거에서는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 후보 간 비교를 2002년 선거에서는 이회창-노무현 후보 간 비교를 보여주고 있다.

11) 이념은 1(보수) - 5(진보), 정부평가는 1(잘함) - 5(못함), 성별은 1(남성) - 2(여성)

12)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선택을 비교해 보면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비교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두 후보가 같은 당 소속이었다는 점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이념 변수는 두 후보를 구분짓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진보적 유권자일수록 이회창 후보보다는 이인제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영남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으나 호남 변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다. 즉, 호남 유권자일수록 이회창 후보보다는 이인제 후보를 선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 간 비교보다는 김대중 후보와 이회창 후보를 통해 얻은 결과를 통해 1997년 선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이회창 후보가 여당 후보였으며 김대중 후보가 제1야당 후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인제 후보와 이회창 후보는 이인제 후보가 탈당하기 전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구분지어 비교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 13〉 대통령 평가 변화에 따른 확률 변화

연도	확률 변화
2007	0.543
2002	0.315
1997	0.381

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여당의 노무현 후보보다는 야당의 이회창 후보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대통령평가와 함께 이념, 지역주의 변수는 2002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편, 두 번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세대가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2007년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과거 선거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17대 대선이 과거 두 번의 선거와 차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하지만 앞서 과거 두 선거와 달리 2007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미시적 접근과 거시적 접근을 통해 알 수 있었다. 2007년에 대통령 평가 변수의 영향력이 1997년과 2002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변수와 구분되는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수가 확률변화에 미친 영향력을 측정해 비교해 보았다. 즉, 대통령 평가 변수 외 다른 변수들은 평균 값으로 고정시키고 대통령 평가 변수의 변화가 확률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¹³⁾ 연구의 관심 변수인 대통령 평가 변수에 가장 낮은 값을 대입시켰을 때와 가장 높은 값을 대입시켰을 때 나타난 확률의 변화를 〈표 13〉은 보여주고 있다.

앞서 각 선거에서 대통령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에도 구분되는 차이가 있음을 〈표 13〉은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선거에서 대통령이 업무수행을 매우 못한다고 대답

13) 확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Liao(1994) 참조 바람.

한 응답자에 비해 매우 잘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정동영 후보보다 이명박 후보를 선택할 확률은 0.543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통령 평가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2002년과 1997년 선거에서 대통령 평가 변수의 영향력은 2007년에 미치지 못해 대조를 보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의 결과는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각 선거에서 구분되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선거에서 대통령 평가의 영향력은 두 선거에 비해 매우 컸으며, IMF 위기를 경험한 1997년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반면, 2002년 선거에서 대통령 평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V. 함축적 의미

본 연구는 17대 대통령선거의 특징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과거 15대와 16대 대통령선거와 비교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17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정도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월별 지지율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이러한 평가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대통령선거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발견되었지만 그럼에도 17대 대통령선거가 구분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거와 달리 유권자의 회고적 투표가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3김 퇴장 이후 치러진 첫 번째 선거였기에 이러한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앞으로 대통령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선거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과거 민주화 이후 대통령선거 결과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는 조금은 다르게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과거 대통령선거 결과는 3김의 영향력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보다는 3김이 지지하는 후보자 중심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3김이 퇴임한 이후 대통령선거는 과거와 달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물론 지역주의의 영향력이 아직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철저하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 중심으로 선거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2007년 대통령선거 결과가 보여주었듯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의 선택에 점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선거결과를 통해 앞으로 빈번한 정권교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대통령선거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통해 정권연장을 위해서는 현직 대통령 업무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필수적이라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통령들의 지지율 변화와 임기 말 지지율을 통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며, 특히 임기 말에 높은 지지를 국민들로부터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고 이는 빈번한 정권교체로 이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가상준. 2007. “2007년 대선과 이념.” 『NGO 연구』 제5권 1호: 27-78.
- _____. 2002. “조지 부시 지지율을 통해서 본 조지 W. 부시의 지지율.” 『국제정치논총』 42-1: 101-126.
- 강원택. 2008.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2008년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 _____. 2003. 『한국의 선거 정치: 이념, 지역, 세대와 미디어』. 서울: 푸른길.
- _____. 2002. “유권자의 정치이념과 16대 총선: 지역균열과 이념균열의 증첩?”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김 욱. 2006. “16대 대선에서 세대, 이념 그리고 가치의 영향력.”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어수영 편저. 서울: 도서출판 오름.
- 박상훈. 2001. “한국의 유권자는 지역주의에 의해 투표하나: 제16대 총선의 사례.” 『한국정치학회보』 35-2: 113-134.
- 이갑윤. 1999. 『한국의 선거와 지역주의』.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정구종. 2006. “16대 대통령 선거 분석: 정치변동에서 사회변동으로.” 『한국의 선거 V: 제16대 대통령선거와 제17대 국회의원선거』. 어수영 편저.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조기숙. 1997. “지역주의 논쟁: 비판이론적 시각에 대한 비판.” 『한국정치학회보』 31-2: 203-232.
- 조진만 · 최준영 · 가상준. 2006. “한국 재,보궐선거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2: 75-100.
- Abramowitz, Alan I. 2004. “When Good Forecasts Go Bad: The Time-for-Change Model and 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PS: Political Science and Politics* 37-4: 745-746.
- Brody, Richard, and Lee Sigelman. 1983. “Presidential Popularity and Presidential Elect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47-3: 325-328.
- Campbell, Angus. 1960. “Surge and Decline: A Study of Electoral Change.” *Public Opinion Quarterly* 24-3: 397-418
- _____,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 Voter. New York: Wiley.
- Campbell, James E. 2004. "Introduction-The 2004 Presidential Election Forecasts." *PS: Political Science & Politics* 37-4:733-735.
- Clarke, D. Harold, and Marianne C. Stewart. 1994. "Prospections, Retrospections, and Rationality: The Bankers Model of Presidential Approval Reconsidered."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4: 1104-1123.
- Downs, Anthony.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Harper & Row.
- Erikson, Robert S., and Kent L. Tedin. 1995. *American Public Opinion*, MA: Allyn and Bacon.
- Fiorina, Morris.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Kramer, Gerald H. 1971. "Short-Term Fluctuations in U.S. Voting Behavio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5-1: 131-143.
- Kinder, R. Donald, and D. Roderick Kiewiet. 1981. "Sociotropic Politics: The American Cas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1-2: 129-162.
- Lewis-Beck, Michael S., and Tom Rice. 1982. "Presidential Popularity and Presidential Vote." *Public Opinion Quarterly* 46-4: 534-537.
- Liao, Tim Futing. 1994. *Interpreting Probability Models: Logit, Probit, and Other Generalized Linear Models*. Thousands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Inc.
- MacKuen, B. Michael, B. Robert Erikson, and James A. Stimson. 1992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2: 597-611.
- Norpoth, Helmut. 1996. "Presidents and the Prospective Voter." *Journal of Politics* 58-3: 776-792.
- Ostrom, W. Charles, Jr., and Dennis M. Simon. 1985. "Promise and Performance: A Dynamic Model of Presidential Popularit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2: 334-358.
- Sigelman, Lee. 1979. "Presidential Popularity and Presidential Elect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43-4: 532-534.
- Tufte, R. Edward. 1975. "Determinants of the Outcomes of Midterm Congressional Elec-

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3: 812-826.

- _____. 1993. “Economic and Political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Midterm Congressional Elections.” In *Classics in Voting Behavior*, Richard G. Niemi and Herbert F. Weisberg, ed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Quarterly Inc.

[ABSTRACT]

The Effect of President Roh's Approval Rating o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Ka, Sang-joon | Dankook University

The study aims at examining the effect of approval rating of president Roh o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Likewise, the study analyzes characteristic of 17th presidential election by comparing with results of the 15th and the 16 presidential election. To do so, it carefully examines the theory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and election outcome. And, the study comparatively investigates the effect of evaluation on president Roh's performance on voters' decision. Survey results show that low approval rating of president Roh directly had an influence on the election outcome. Although the study found the effect of presidential approval rating in the previous two presidential elections, it shows that the effect in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is more enormous. The electorate show a strong tendency of retrospective voting in the 2007 presidential election compared with the previous elections. The outcome of the 17th election implies the effect of incumbent president's approval rating become more significant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Likewise, it indicates a government party will experience a difficult time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 president Roh Moo-hyun, approval rating, the 17th presidential election, retrospective voting